

보도시점

2023. 10. 17.(화) 16:00

배포

2023. 10. 17.(화) 16:00

농어촌公, 꿀벌 서식지 파수꾼 역할 톡톡

-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 주변 부지 1ha에 유채 씨앗 파종
- 밀원식물 활용한 팜아트로 꿀벌 서식지 및 관광명소 역할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10월 17일 전북 완주군 구이저수지에서 한국양봉협회, 마을주민 등 50여 명과 유채 씨앗을 파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양봉협회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유채 종자 15kg을 구이저수지 주변 부지 1ha에 식재했으며, 노란색 유채(황운), 흰색 유채(새얀), 보라 유채 씨앗을 활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로고를 형상화한 팜아트(논그림) 공간을 조성했다. 내년 3월경 유채꽃이 만개하면 구이저수지 일대가 꿀벌의 밀원지이자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주)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 (주)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과 「밀원수림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2개 마을에 꿀벌의 먹이원인 밀원식물을 식재해왔다.

이병호 사장은 “꿀벌 실종 이슈는 농어업, 농어촌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식탁, 나아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이니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밀원수림 조성사업이 꿀벌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책임자	부 장	송영수 (061-338-6041)
	총무부	담당자	사 원	김고은 (061-338-6046)